

제10회 이사회 의사록

2007. 10. 02(화) 16:00

한 국 관 광 공 사

2007년도 제 10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7. 10. 2(화) 16:0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안 건 : 총 5건

(심의안건)

◎ 직원 연봉규정 개정(안) : 부결(재심의)

(보고안건)

◎ 2008년 관광진흥개발기금예산 잠정 확정 보고 : 원안접수

◎ 지하철 역내 주변지역안내도 표기개선 시범사업 보고 : 원안접수

◎ APTIC & EXPO 개최 보고 : 원안접수

◎ 로그인투어리즘 2007 결과 보고 : 원안접수

4. 재적 이사 : 8명

5. 출석 이사 : 8명

6. 참 석 자

의 장 강 광 호 이 사 김 지 상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신 진 기

이 사 홍 주 민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정 의 선

이 사 김 향 숙

7. 의 사 록 : 붙임

의 장 :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10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먼저 지난 제9회 이사회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9회 이사회 결과 보고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5건이며, 이중 심의안건은 직원 연봉규정 개정(안) 1건이고, 보고안건은 2008 관광진흥개발기금예산 잠정 확정 보고, 지하철 역내 주변지역안내도 표기개선 시범사업 보고, APTIC & EXPO 개최 보고, 로그인 투어리즘 2007 결과 보고 등 4건입니다.

의 장 : 그럼 먼저 직원 연봉규정 개정(안)에 대해 마케팅 기획리더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기획리더 제안 설명하다)

의 장 :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직원 연봉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차익 등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되니까?

마케팅기획리더 : 인건비의 경우에는 달러를 기준으로 정액 지급 되기 때문에 환차익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만, 사업비의 경우에는 불용처분 됩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단위사업별로 지원 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등이 생기면 불용처분하고 추가로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신진기 이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마케팅기획리더 : 2007년 8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신진기 이사 : 공사 뉴텔리 지사는 지금 직원들이 부임한 상태입니까?

마케팅기획리더 :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진기 이사 : 심양지사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마케팅기획리더 : 현재 지사 개설 중에 있습니다

신진기 이사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케팅기획리더 : 예 그렇습니다

신진기 이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월에 개정되었는데
공사 직원은 아직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0
월부터 규정 개정에 의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결론 아
닙니까? 만약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사 직원 입장
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때에는 법무팀으로
하여금 형식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기획리더 : 당연히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진기 이사 :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지적했었습니다
만, 규정 개정(안)은 형식을 좀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
니다. 법조형식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주문, 개정
사유,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순으로 형식을 갖춰 주
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자료로 별첨해 주셔야 합니
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전혀 형식이 맞질 않습니다. 내
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아니
겠습니까?

의 장 :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
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차기 이사회 개최 시 다
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의견을 확인함)

의 장 : 이사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직원 연봉규정 개정 (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정부(안)으로 잠정 확정된 2008년 관광진흥개발 기금예산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보고 드린 2008년 관광진흥개발기금예산 잠정 확정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보고내용 중 2010년에 외래객 유치목표가 1천만명 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유치목표는 몇 명이고 연말 기준 유치인원 추정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집계가 되었 습니까?

홍주민 이사 : 올해 유치목표는 700만명이고 연말기준 유치인원은 6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목표치가 700만명인데 실적이 640만명이면 경영평 가에서 많이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주민 이사 :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칩 니다. 그동안에는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러면 2008년도 외래객 유치목표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홍주민 이사 : 2008년도 유치목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와 좀 더 협의를 한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아직 확정된 안이 없군요. 그렇다면 내년도 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치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홍주민 이사 : 급격한 증가는 어렵겠지만 금년처럼 3~4% 수준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내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외래객 유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홍주민 이사 : 북경올림픽도 당연히 유치활동에 활용하겠지만, 앞으로는 중국에 오는 관광객을 유인하지 않고는 외래객 유치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올림픽을 계기로 경유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 기간 중에 한국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자문제 또한 도착 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북경올림픽 개최 시 중국에 올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예약을 마친 상황일터인데 우리도 이미

상품이 개발되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예 정상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자문제는 북경올림픽에 관광 올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문제는 단지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경에서는 엄청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오기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평가에 의하면 도시 청결상태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서울은 북경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검토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2001년에 공사가 주축이 되어 한국방문해 사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1994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한국방문의해 사업도 그랬고요. 이번 북경올림픽때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요트경기가 열리는 칭따오는 인천에서 1시간 비행거리밖에 안되는데 그곳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만이라도 적극 한국으로 불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말고는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북경 상공이 혼잡해져서 인천공항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북경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더라

도 실현가능한 계획들부터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검토하고 계획만 세우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정확히 10개월 남았습니다. 실현가능한 계획부터 차곡차곡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저한테도 꼭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주민 이사 : 예,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테크놀로지본부장 : 도영심 이사님 말씀하신 포인트와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북경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의 전지훈련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철인3종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미국, 프랑스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경주 및 제주로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북경올림픽때도 그러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외국 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할 때는 올림픽 주최국과의 이해관계 등도 고려해 볼 때 소위 선진국 선수단 보다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선수단을 유치하는 것이 유치국가 수를 늘리는데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 사후 홍보효과도 더 클 것입니다. 향후 한국이 올림픽을 또 유치한다면 그 과정에서 전지훈련 유치국 수는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테크놀로지본부장 : 이사님 의견을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한 가지 더 좀 여쭙보겠습니다. 공사가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의 장 : 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직원이 한명 파견근무중이고, 파리지사장이 추진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장은 당연직으로 조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홍주민 이사 : 그리고 모든 해외 홍보활동 시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유치단 활동에 직원이 직접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11월 말이면 개최국이 결정 될 텐데, 지금 남은 기간만이라도 공사가 구체적인 유치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상 이사 :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고 자료에 보면 유치활동비는 증가하고 유치홍보비는 감소했습니다. 매년 예산 수립시마다 광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광고비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 작년에는 국회 회기 중에 서비스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150억원의 특별 광고예산을 배정 받았으

나 올해는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광고예산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예산 책정 이전 년도의 광고예산들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활동비는 해외진흥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김지상 이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관광진흥활동 내역을 보면 관광전문인력육성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경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통역요원들을 더 양성해야 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등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지 비용을 개인들한테 부담시킨다면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관광테크놀로지본부장 : 이사님 말씀대로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나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공사는 교육관련 노하우를 제공하고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김지상 이사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동양 문화권이므로 서양에서 온 관광객들은 당연히 불교사찰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가이드들의 영어 설명이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부 유명사찰만이라도 전문

가이드를 배치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 분야의 가이드 현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상 이사 : 도이사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공사가 적극적으로 실행에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테크놀로지본부장 :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템플스테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조계종측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도 템플스테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명목이라서 별도의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현 그대로 아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요?

예산팀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비용이 따르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의선 이사 : 공사가 다른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출자액의 일부인 100억원을 출자하는데 그 지분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팀장 : 공기업이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공기업은 법에 의해 총 출자액의 30% 이하로만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10%의 지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이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관광진흥개발기금예산은 우리나라의 관광진흥 및 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가 공사에 지원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지난해 보다 약 16% 정도 증액되었고 총액이 1천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이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지난해 연말 2007년도 예산심의 때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2007년에는 외래객 유치목표도 700만명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올림픽에 오는 외래관광객들을 한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도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10월이고 앞으로 10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공사의 활동이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가 적극 나서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공사 자체적으로 만이라도 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 관광진흥개발기
금예산 잠정 확정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APTIC & EXPO 2007 개최에 대해 관광투
자유치센터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투자자유치센터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보고드린 APTIC & EXPO 2007 개최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이번이 두 번째 개최지요?

관광투자자유치센터장 : 예, 그렇습니다

도영심 이사 : 보고 내용을 보니 작년과 올해의 차이 중에서
두드러진 점이 올해는 컨퍼런스와 박람회를 함께
개최한다는 점이군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분
은 2006년도에 이 업무에 관여하셨습니까?

관광투자자유치센터장 : 올해 처음 맡았습니다.

도영심 이사 : 작년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났습니
까?

관광투자자유치센터장 : 작년 담당자는 현재 교육과전중입니다.

도영심 이사 : 제가 이런 회의개최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이 있는데 전년도 회의개최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년도에 회의를 개최하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도출과정에 있는지 하는 점들 말입니다.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혹시 2006년도 회의개최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특이점이 있습니까?

관광투자유치센터장 :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회 한번 개최하고 나서 바로 투자로 연결시키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유치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나면 이사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은 참작하겠지만, 문제는 다른 경쟁국들은 총회 개최 후에 바로 투자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가 이러한 행사를 훌륭하게 치루고 나서는 사후관리를 매우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물어봤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담당자도 매번 바뀌고 예산도 행사 한번 성대히 치루고 나면 불용처분 시켜버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의 경쟁국들은 그러한 사후관리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내년에 사

후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투자유치센터장 : 이번 행사를 개최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투자자 초청부문에 있어서 작년 회의 때 참가했던 분들의 추천을 통해 초청자 섭외를 하게 된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사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작년 행사를 참관했던 저로서는 올해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행사규모도 커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 치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APTIC & EXPO 2007 개최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지하철 역내 주변지역안내도 표기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수도권협력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협력단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보고 드린 지하철 역내 주변지역안내도 표기 개선 시범사업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선 이사 : 이 사업 아이디어는 공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수도권협력단장 : 원래 일본의 지하철역 안내도를 모델 삼아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하철역 안내도는 사진도 들어있고 한데 우리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능 측면에서 필수요소는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김지상 이사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내용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공사가 개발한 한국관광브랜드 코리아 스파클링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 코리아 스파클링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코리아 스파클링 광고 시 한국관광공사도 함께 노출시켜서 국민들이 코리아 스파클링이 관광공사가 개발한 한국관광브랜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인데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 많은 광고판중에 한국을 홍보하는 광고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인천국제공항만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한국과 인천국제공항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나라 공항에 내렸을 때 받는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협력단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보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사가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5개 지하철역의 안내표지가 93개이고 향후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이지요?

수도권협력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이사 :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 분야별로 다소 분분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여행자들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안내표지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습니까?

수도권협력단장 : 이 사업은 주 시행 기관인 서울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시기적으로나 준비기간으로 보나 다소 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 디자인 자체도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관광지 정보를 추가하는 정도였습니다. 향후에 다른 지하철역들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하철 역내 주변지역 안내도 표기개선 시범사업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로그인투어리즘 2007 결과에 대해 E-투어리즘기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E-투어리즘기획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보고 드린 로그인투어리즘 2007 결과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이사 : 지금 안건은 로그인투어리즘 2007 결과에 대한 보고인데 내용은 주로 사업개요 등 이미 지난번 개최 보고 시 들었던 것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인 만큼 사업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행사 개최 후 피드백은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향후 방향설정 등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서 보고를 해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투어리즘기획팀장 :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94%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가 관광과 IT를 접목시켜 국내 E-투어리즘을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현재 성과가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SK, 경주시 등 몇몇 기업체 및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이사 : E-투어리즘기획팀장님 말씀하신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행사 결과보고에 포함되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분야를 개척하고 확산시키는데 공사가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참가했던 관계자나 일반인들의 행사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일반인 참가 부문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상 이사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로그인투어리즘 2007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0회 이사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타봉)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07. 10. 2.

이 사 강 광 호

이 사 김 지 상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신 진 기

이 사 홍 주 민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정 의 선

이 사 김 향 숙